

고은 불교 대하소설



수월 떠나버리다

하지만 그녀는 무욕도를 떠날 수 없었다. 그녀의 열기(靈氣)로서도 일렁거리는 셋째부인의 어린 딸이 마치 신이라도 들린 것처럼 난리가 난다는 소리를 하는 것과 그녀 자신의 예감을 맞춰보고 싶은 충동이 컸다.

그런데 이곳에서 오직 수월만이 그녀나 과현과 같은 신령스러운 경지를 아주 못마땅해하는 것이었다. 그는 선수행에서도 어떤 경지에 이르러 특별한 황홀경을 누리던가 불보살이 현신(現身)하는 것을 체험한다던가 하는 일들을 그것이야말로 사악한 것이라고 규탄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 도량을 무당의 시궁창으로 만들 작정인가!”라고 노여움을 품어 따대기로 바닷물을 마구 두들기는 일도 있었다. 이런 수월을 그의 단짝인 수원이 말려도 어림 없었다.

“수원! 그대까지 그놈의 신통이나 괴이한 예언 따위에 숭고하고 있는가. 한번 앞과 뒤가 없는 법(法)으로 살기를 작정한 몸일진대 합부로 기울어 질 때가 없는 막다른 데에 처한 것이 우리 공부 아닌가. 며칠동안의 용맹정진중에 관음(觀音)이 보였단가 서방정토에서 아미타불이 일어왔다던가 하는 헛것에 사로잡히는 일야말로 잠깐 도가 아닌 줄 왜 모른다 말인가.”

“수원! 이 무욕도가 그동안 바론 도가 아니라 이상야릇한 수작으로 마치 부처를 다 이런 헛것처럼 우물대는 것으로 세월을 보낸 죄가 지옥 밑바닥에 닿아있게 되었단 말야네. 아니 그거지 지옥이라는 것도 어디에 따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수

미산이 솟아있는 것도 아니란 말일세... 다 미혹이야 미혹!”

수원은 이런 격렬한 수월의 말들로 오악 오악 소름이 끼치는 것이었다.

인제 이 사람이 이런 단호한 규탄을 터뜨릴만한 강력한 의지를 길러냈던 것인가에 대해서 새삼 놀라고 있었다.

“이 사람 수월! 그만 하시게.”

라고 이제까지 격의 없는 단박으로서가 아니라 어느 만큼 두려운 존재가 된 벗을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나 그런 정도로는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여보게 수원! 그대는 앞으로 비구니 우녀 따위의 위력에 조금도 놀리지 말게. 우녀를 추앙하고 있으면서 그 우녀에게 폭박쳐있는 애육 투성이의 인담스님도 이제 는 더이상 우리를 인도할 힘이 없음을 알아야.”

“무슨 말인가?”

“그대도 그들과 놀아나서 헛소리나 할테면 하거나... 나는 이놈의 섬이 아주 싫어졌어.”

“수월!”

“이놈의 섬에 붙이나 지르고 살을 썬어 야.”

수원은 이 말에 깜짝 놀랐다. 그것은 임천지의 셋째부자가 낳은 어린 딸이 이따금 지껄리는 “불기둥이 솟아오른다”라는 것과 달아있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수원! 재네도 신령스럽기는 마찬가지야네. 재네도 우녀스님이나 풀 건너 어린 아이의 예언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지 몰라.”

수월이 수원의 불을 쳤다. 수원은 멍멍

한채 한동안 어리둥절 하였다.

실로 이상한 것은 수월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불을 맞은 수원이 혼자 한마디 말을 내뱉었다. “아무래도 이 도량은 끝날 모양인가. 다시 사람이 살지 않는 옛날의 섬으로 돌아갈 모양인가.”

수원은 새삼 고독하였다. 그는 혼자 방선시간을 다 지난 뒤에도 방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저만큼 소나무와 다른 나무들이 섞여있는 숲언저리로 다가갔다. 그렇게 되자 그때까지 격렬했던 수월이

제풀에 마을을 가리안해 경상상태가 되어 막대기로 바닷물을 툄타툄타 건드리고 있었다.

숲속에 들어간 수원은 문득 발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거기에 말메미 한 놓이 시를시를 살아있었다. 아니 그것은 살아있다기보다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발새 여름이 다 가버렸구나.”

매미나 그보다 작은 매미는 여름을 충실하게 살았던 것이다. 온몸으로 노래하기를 그칠 줄 몰랐다. 그것은 무욕도의 파도소리에 비기리라도 하는 것처럼 필사적인 소리의 정진이기도 하였다.

여름 한철을 이렇듯이 노래하기 위해서 땅속의 굴벽이로 30년을 남게 있다가 매미로 되는 그 삶과 역정이 얼마나 치열한 것인가. 그러다가 나무 줄기나 밑둥치에 붙

은채 죽어있는 것도 처절하지 않을 수 없다.

수원이 혼자 죽어가는 말메미를 보고 중얼거렸다.

“그야말로 너는 이 세상의 스승이었다. 너의 유정(有情)의 설법을 나같은 사람이 제대로 듣지 못했으니... 그 소리공양에 의해서 나같은 사람이 도를 깨치지 못했으니... 내 어리석음을 어디에 던질 수 있겠느냐.”

그는 수월 대해서도 생각하였다.

신이(神異) 신통(神通) 신령(神靈) 따위의 괴이한 것, 사탄(邪) 것, 어지러운 것의 미혹을 참다 참다 굴복하기 시작한 수월의 도정은 실로 뜻밖이었다. 그외의 단박인 수월 자신도 수월의 어디에 그런 서슬 퍼런 도진이 감추어져 있는지 털갈만해도 짐작할 수 없었다.

과연 진정한 도는 평상(平常)에 있을진대 특이한 경지만을 추구한 것 같은 이력(力)이나 영험(靈驗) 따위는 지극히 실익은 노릇이기도 하다.

그래서 수월은 숫새 이 세상을 먼저 떠난 다른 세상 권력의 도반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지나치게 문화와 전생애 의존하는 조급한 소승(小乘)의 발암(發願)을 한 것에 거의 경멸에 가까운 비판을 서슴치 않

“그대까지 신통이나 예언따위에 숭고하고 있는가
앞 뒤가 없는 법으로 살기를 작정한 몸일진대 헛것에 사로잡히는 일이...”

자신이 이런 수월의 갑작스러운 두려움 자체도 수월이 그토록 경멸하는 하나의 신통력으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우녀는 수월의 반대로 신도 입침지를 만나러 갈 수 없이 주저앉았다. 그녀가 뜻을 굽혀 배를 타지 않은 것은 수월의 말을 고분고분 들어준 것만이 아니라 이로부터 이 섬은 수월의 힘에 의해서 유지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뜻한다.

우녀가 수월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렇다면 이곳의 처음을 연 인담에 이어 우녀, 우녀에 이어 수월이 이곳의 주도권을 받아들인 것이 되었다. 수월은 이제까지의 눈에 띄지 않던 처지에서 공부와 살림까지도 그의 도저하기까지 한 뜻이 반영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런 말 끝이었는데 비가 뿌리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우녀가 말했다. “비가오나 내 이름이 비의 계집입니다.”

이런 말 겨우기로 보아 수월에게는 우녀가 아직 조복(調伏)된 것이 아니었다.

이런 무욕도의 사정이므로 인담이나 우녀가 처음 수월에 끌렸고 과현이 그의 신들린 경지에 음츠러들어 혼자 있기를 좋아하였다.

오직 수원만이 수월에게 때로는 엇보고 때로는 오랜 정을 나누는 사이로 지내고자 하였다. 그런데도 수원이 수월에게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처지로 된 것이다.

“이 놈의 섬을 떠날까보다.”

라고 수원 조차도 개탄하기에 이르렀다.

그런 개탄이 있고 난 이후 뒤 그말이 씩가 되어서 수월은 밤중에 메어둔 배를 풀어서 물 쪽으로 떠나 버렸다. 실로 너무 간단해서 어이없는 일이었다.

“나는 지옥에도 천상에도 갈 생각이 없애 나는 그저 이 나라 사바세계의 아무데나 떠돌다가 나무 옷(棺) 한벌 없이 그냥 쓰러질 것이야!”

라고 어둠 속의 물안개에 대고 말하는 것이었다.

때마침 가을 바다안개의 때였다. 밤새도록 안개 속의 바다에서 파도소리도 그 일대의 것만 들리고 있었다. 이 밤의 바다안개는



“내 이름 수월도 내버리고 싶소 법명이나 법호도 다 말라버린 개똥인 것이요”

눈은 용이 크게 움직이려하며 붉은 불황이 문득 높이 날도다 (鳳凰騰翥 丹鳳展翔)

“지옥에 떨어져 지옥중생과 함께 살겠다고? 어리석기는... 천상에 올라가 천상의 복락을 누리려고? 어리석기는...”

그런데 수월은 이곳 무욕도의 수행에 대해서도 여간 신랄한 것이 아니었다.

“공병(空病)에서 헤어지지 못하는 것이 우리 공부였어 저 대승의 아버지라는 용수도 그의 중관학(中觀學)에 관한 자칭으로 주장한 것이라면 그것부터가 공(空)에 떨어지고 마는 악취공(惡取空)일 수밖에... 잘 따져 보지면 역대 조사들의 총론도 다 이 악취공의 세말이 아니었던가.”

이런 대답하기까지 한 수월의 주장은 실로 예고 없는 사대 그것이었다.

아니 수월이 언제 이런 뜨거운 주장들을 내세울만큼 이론을 익혔던 것인가. 그의 함께 지고 현 세월의 도반인 수원

다음날 오전내내 장막처럼 채워져 있다가 그것 자체가 파편처럼 슬슬 갈라서 어떤 배반처럼 서쪽 수평선이 열리는 것이었다.

안개 속의 새벽 예불에 수월이 보이지 않은 것은 당연하였다. 인담이 한동안 찾아보았다.

수원이 말하였다.

“헛수고입니다. 그는 떠났을 것입니다.”

“네?”

하고 우녀가 큰 눈에 걱정을 담고 있었다.

“처음은 상상했다가 나중에는 사들여가는 것이 어찌 일세 썬이겠습니까. 우리가 모인 이 회상도 그렇지요.”

인담이 그다지 않게 사나이의 눈을 한 방울을 맺고 있었다.

“수원! 이 무욕도가 그동안 바론 도가 아니라 이상야릇한 수작으로 마치 부처를 다 이런 헛것처럼 우물대는 것으로 세월을 보낸 죄가 지옥 밑바닥에 닿아있게 되었단 말야네. 아니 그거지 지옥이라는 것도 어디에 따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수

그림·조향숙

北韓에서 完全 번역한
순한 글

八萬大藏經

本社 原本入手
맞춤법 활자제 우리에게 맞게
새롭게 조판하여 出版完了

全十六卷
민족의 혼을안고 도도히 흐르는 영원불멸의 진리!!

八萬大藏經
수백권의 엄청난 분량 다 읽고 전부 배우기란 쉬운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해제로 된 本書 단 16卷만으로도 八萬大藏經의 내용을 쉽고 간략하게 그 核心을 理解할 수 있는 참으로 보배스러운 今世紀 最高의 번역 佛書입니다.

스님, 佛敎學者, 포교사, 佛子, 先生님, 學生, 大學人, 史學者 심지어 他敎宗 聖職者까지도 감탄과 찬사를 아끼지 않고 지금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韓國의 國寶, 世界的 寶物, 神祕의 八萬大藏經 이제 순 한글로 完譯된 八萬大藏經을 우리들 서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 색인부가 있어 보고 싶은 부분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크라운版 洋裝本 각권 400~700쪽)

정가 350,000원 500질 한정특별인가가 280,000원

販賣元: 文獻 情報 文書布敎事業部
문의전화: (02)929-0211~4